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로타리클럽과 ESG 실천 '맞손'

✎ 박나라 기자 | ⓒ 승인 2025.07.08 22:1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국제로타리3620지구, 환경정화농촌 봉사활동 등 공동 추진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 농촌 현장에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이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는 8일 국제로타리 3620지구(총재 차명환)와 저수지 환경 정화, 수해 복구,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위한 '녹색손길 ESG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번 협약은 지난해 맺은 1차 협약의 연장선으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과 공동체 기여를 위한 협력 기반을 재정비한 것이다.

특히 '충남의 맑은 내일을 위한 물빛 동행'을 표어로 내걸고, 환경보전과 농촌 봉사의 접점을 넓히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실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수해 복구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장에서 공동으로 펼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친환경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국제로타리3620지구와 손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화와 자원 순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명환 국제로타리3620지구 총재는 "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농어촌공사와의 협력으로 충남의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국제로타리3620지구는 앞으로도 협업 모델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나라 기자 nara79@afnews.co.kr